

선덕여왕[善德女王]

우리 역사의 첫 여왕

미상 ~ 647년(선덕여왕 16)



경주 선덕여왕릉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선덕여왕은 신라 제27대 왕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다. 여왕이라는 이유로 국내 정치세력의 저항과 주변국의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김유신(金庾信)과 김춘추(金春秋) 등의 지지세력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상적으로는 불교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웠다.

2 선덕여왕의 가계와 즉위 과정

선덕여왕은 역사서에 선덕왕(善德王)이라 기록되어 있다. 성은 김(金)이고, 이름은 덕만(德曼) 혹은 만(萬)이다. 선덕(善德)은 죽은 후에 추증한 시호(諡號)이다. 제26대 진평왕(眞平王)의 맏딸로, 어머니는 복승갈문왕(福勝葛文王)의 딸인 마야부인(摩耶夫人) 김씨(金氏)이다. 그리고 동생으로는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을 낳은 천명공주(天明公主)가 있었다. 서동설화(西東說話)에서는 선화공주(善花公主)가 진평왕의 셋째 딸이라 하여, 선덕여왕의 동생으로 나온다. 선덕여왕의 남편에 대해서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음갈문왕(陰葛文王)이 배필이라고 하였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차이를 보인다. 자식은 없었다고 한다.

632년 정월, 진평왕이 죽자, 선덕여왕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신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왕위에 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삼국사기』에는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인(國人)들이 덕만을 왕으로 세우고 성조황고(聖祖皇姑)라는 칭호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신라 중고기의 왕위가 반드시 왕의 아들로 계승된 것은 아니어서, 여왕 탄생의 이유로는 불충분하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성골(聖骨) 남자가 다하여 여왕을 세웠다’고 다른 이유를 전하고 있다. 당시 진평왕의 가계를 살펴보면, 진평왕의 동생인 백반(伯飯)과 국반(國飯)은 이미 사망한 뒤였고, 이들에게도 자식은 국반의 딸인 승만(勝曼, 진덕여왕) 밖에 없었다. 진평왕의 가계에 성골 신분을 가진 남자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차선택으로 성골 신분으로서 여성인 덕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성골이라는 신분은 선덕여왕 즉위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점은 왕위계승의 반대 이유가 되기도 했다. 진평왕이 죽기 직전인 631년(진평왕 53), 이찬 칠숙(伊飡 柒宿)과 아찬 석품(阿飡 石品)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이 난은 여성인 선덕여왕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덕여왕은 성골 신분을 강조하고, ‘성고황조’라는